

민주연구원 '현장의 목소리를 통한 소상공인 입법과제' 정책브리핑 발간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강득구 원장)은 10월 6일(화), 『현장의 목소리를 통한 소상공인 입법과제』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 강득구 원장은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힘입은 역대급 성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이러한 과실이 제대로 이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며, “이번 브리핑은 실제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입법 및 정책과제를 제안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밝혔다.
- 브리핑은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필요자금과 협상력 강화 관련 입법과제를 제안하였다.
 - 첫째,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필요자금과 관련하여 ▲ 단기자금을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높은 보증료를 개선, ▲ 보험약관 대출금리에 대한 적정성 점검, ▲ 소상공인이 보유한 동산에 대한 담보대출, ▲ 소상공인의 영업 필수 기자재 구입에 대한 정책자금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둘째, 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와 관련하여 ▲ 모든 소상공인들이 거래상대방과 협상할 수 있도록 제도화, ▲ 가맹점주 단체 등록 기준 재점검 및 등록을 위한 정책적 지원, ▲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조정과 중재 노력, ▲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단체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민주연구원 정상희 수석연구위원은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만나보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은 비슷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점을 찾아가는 등 현장에서 답을 찾아가는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